

##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

### 한서 조선전

1) 조선왕 만(滿)은 연나라 사람이다. 처음 연나라 때부터 일찍이 진번과 조선을 침략하여 복속시키고, 군리를 두기 위하여 국경에 성을 쌓았다. 진나라가 연을 멸한 뒤에는 요동의요(遼東外徼)에 소속시켰는데, 한이 일어나서는 [그곳이] 멀어 지키기 어려우므로, 다시 요동의 옛 요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는 곳을 경계로 하여 연에 속하게 하였다.

2) 연왕 노관(盧縮)이 [한(漢)에] 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무리 천여인을 모아 북상투에 오랑캐의 복장을 하고서 동쪽으로 도망하여 요새를 나와 패수를 건너 진(秦)의 옛 공지(空地)인 상하장(上下障)에 살았다. 점차 진번조선의 만이(蠻夷)와 옛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함에 도움을 정하였다.

3) 이 때는 마침 [한(漢)의] 효혜(孝惠)·고후(高后)의 시대로서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니, 요동 태수는 곧 만을 외신(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여, 국경 밖의 만이(蠻夷)를 지켜 변경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만이의 군장들이 [중국에] 들어와 천자를 알현코자 하면 막지 않도록 하였다. 천자도 이를 듣고 허락하였다. 이로써 만은 군사들의 위세와 재물을 얻게 되어 그 주변의 소읍을 침략하여 항복시키니, 진번, 임둔도 모두 와서 복속하여 [그 영역이] 사방 수천 리가 되었다.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때에 이르러서는 유인해 낸 한나라의 망명자 수가 대단히 많게 되었으며, 천자에게 들어와 조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번·진국(辰國)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는 것도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4) 원봉(元封) 2년(B.C.109) 에 한나라는 사신 섭하(涉何)를 보내어 우거를 꾸짖고 회유하였으나, [우거는] 끝내 천자의 명을 받들려고 하지 않았다. 섭하가 돌아가는 길에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 마부를 시켜 [자기를] 전송나온 조선의 비왕(裨王) 장(長)을 찔러 죽이고 곧바로 [패(溍)]수(水)를 건너서 새(塞) 안으로 달려 들어간 뒤, 드디어 천자에게 '조선 장수를 죽였다'고 보고하였다. 천자가 그 공을 기려 꾸짖지 않고 [섭(涉)]하(何)에게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의 벼슬을 내렸다. 이에 조선은 하(何)에게 원한을 품고 군사를 출동시켜 기습 공격하여 하(何)를 죽이니, 천자는 죄인을 모집하여 [군사를 만들어] 조선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 해 가을에, 누선장군(樓船將軍) 양복(楊僕)을 파견하여 제(齊)로부터 배를 타고 발해(勃海)를 건너가게 하고, 병력 5만으로 좌장군(左將軍) 순체(荀彘)는 요동에서 출격하여 우거를 주살하게 하였다. 우거는 군사를 일으켜 험준한 곳에서 대항하였다.

5) 좌장군의 졸다(卒多)가 요동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진병(進兵)하였으나 싸움에 패하여 군사는 흩어지고 다(多)도 도망하여 돌아왔으므로 법에 의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누선[장군]은 제나라 병사 7천명을 거느리고 먼저 왕함에 도착하였는데, 우거가 성을 지키고 있다가 누선장군의 군사가 적은 것을 엿보아 알고, 곧바로 성을 나와 누선[군]을 공격하니 누선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났다. 장군 [양(楊)]복(僕)은 그의 군사를 잃고 십여일을 산중에 숨어 살다가 점차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다시 모았다. 좌장군도 조선 패수 서편의 군대를 공격하였으나 깨뜨리지 못하였다.

6) 천자는 두 장군의 전세가 이로우미 없다고 여겨 위산(衛山)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엄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게 하였다. 우거는 사자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항복하기를 원하였으나, 장군이 신을 속여서 죽일까 두려웠었는데, 이제 신절(信節)을 보았으니 항복하기를 청합니다.” 하고는, 태자를 보내어 들어가 사죄하게 하고 말 5천필을 바치며, 또 군량을 공급하였다. 무리 만 여명이 무기를 지니고 막 패수를 건너려 하는데, 사자와 좌장군은 그들이 어떤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태자에게 말하기를, “이미 항복하였으니 사람들에게 병기를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태자도 사자와 좌장군이 속이는데 아닌가 의심하여 마침내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부하를 인솔하여 돌아갔다. [위(衛)산(山)이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산(山)을 주살하였다.

7) 좌장군은 패수에서 군사를 격파하고 바로 전진하여 [왕험]성 아래에 이르러, 그 서북방면을 포위하였다. 누선[장군]도 가서 [좌장군과] 합세하여 성의 남쪽에 주둔하였다. 우거가 끝내 성을 굳게 지키니 몇 달이 되어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좌장군은 본디 시중(侍中)으로 [천자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다가 연과 대(代)지방의 군사를 거느렸으므로 굳세었는데, 싸움에 이긴 기세를 타고 군사들이 더욱 교만해졌다. 누선[장군]은 제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로 출병하였으나 이미 여러 번 패하고 군사를 잃었으며, 앞서 우거와의 싸움에서 곤욕을 치른 패잔한 군사들이므로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장군은 마음으로 부끄럽게 여겨 우거를 포위하고서도 항상 화평을 유지했다.

8) 좌장군이 맹렬하게 성을 공격하니 조선의 대신들은 몰래 사람을 보내어 사사로이 누선[장군]에게 항복을 약속했으나, 말만 오고 갈 뿐 아직 확실한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좌장군은 여러 차례 누선[장군]과 싸울 시기를 정하였으나, 누선[장군]은 [조선과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싸움에 나가지 않았다. 좌장군도 사람을 보내어 조선이 항복해 올 때를 탐문하였으나, [조선은] 이를 받지 않고 누선[장군]에게로 마음을 두고 있었다. 이 까닭으로 두 장군은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 좌장군은 마음속으로 ‘누선이 전번에 군사를 잃은 죄가 있는데다, 지금은 조선과 사이가 좋으면서 [조선은] 또한 항복하지 않으니 그에게 모반할 계획이 있지 않느냐’ 의심은 하면서도 감히 발설하지는 못했다.

9) 천자는 말하기를 “장수가 잘 전진하지 못하므로 이에 위산(衛山)으로 하여금 우거를 달래 항복하도록 하였더니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좌장군과 서로 일을 그르쳐서 끝내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다. 지금 두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서도 의견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판이 나지 않는다.” 하고는, 전 제남태수(前 濟南太守) 공손수(公孫遂)를 보내어 이를 바로잡고 상황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공손]수(遂)가 도착하니 좌장군은 말하기를, “조선이 항복할 형편에 이른 지 오래되었는데도 항복하지 않는 것은 누선이 여러 번 싸울 시기에 합세하지 않아서입니다.”하고는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공손]수(遂)에게 낱낱이 고하면서 이르기를, “지금 이와 같으니, [누선]을 체포하지 않으면 큰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누선 혼자만이 아니라 조선과 함께 우리 군대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니, [공손]수(遂)도 이를 옳게 여기고 좌장군의 군영에 들어와서 일을 의논하자고 부절(符節)로써 누선장군을 부르고는, 곧 좌장군의 부하에게 명령하여 누선장군을 붙잡아 결박한 뒤 그 군사를 [좌장군의 군사와] 합치고, 이를 천자에게 보고하자, 천자는 [공손]수(遂)를 주살하였다.

10) 좌장군이 이미 두 군대를 합병한 뒤 맹렬히 조선을 공격하였다. 조선의 상(相) 로인(路人)·한도(韓陶)와 니계상(尼谿相) 참(參)과 장군 왕겹(王峽)이 서로 모의하기를, “처음 누선[장군]에게 항복하려 하였으나 지금 누선은 잡혀 있고, 좌장군 단독으로 장졸을 합하여 전투가 더욱 맹렬하니, 맞아서 싸우기 두렵거늘 왕 또한 항복하려 하지 않는다.” 하고 [한(韓)]도(陶)·[왕(王)]겹(峽)·로인(路人)이 모두 도망하여 한나라에 항복하였다. 로인(路人)은 도중에서 죽었다.

11) 원봉(元封) 3년(B.C.108) 여름, 니계상(尼谿相) 참(參)이 사람을 시켜 조선왕 우거를 죽이고 와서 항복하였다. [그러나] 왕험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죽은 우거의 대신 성이(成己)가 또 [한(漢)에] 반하여 다시 군리를 공격하였다. 좌장군이 우거의 아들 장(長)과 항복한 상(相) 로인(路人)의 아들 최(最)로 하여금 그 백성을 달래고 성이(成己)를 주살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드디어 조선을 평정하고 진번·임둔·낙랑·현도의 사군을 설치하였다. 참(參)을 봉(封)하여 해청후(濼淸侯)로 삼고, [한(韓)]도(陶)는 추저후(秋菑侯)로, [왕(王)]겹(峽)은 평주후(平州侯)로, 장(長)은 기후(幾侯)로 삼았다. 최(最)는 아버지가 죽은데다 자못 공이 있었으므로 저양후(沮陽侯)로 삼았다. 좌장군을 불러 들여 [그가] 이르자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그러지게 한 죄로 기시(棄市)하였다. 누선장군도 병사를 거느리고 열구(列口)에 이르렀다면 좌장군을 기다렸어야 당연한데, 함부로 먼저 군사를 풀어 많은 병사들을 잃어 버렸으므로 주살함이 마땅하나 속전(贖錢)을 받고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찬자평(撰者評)

○ 찬(贊)한다.

초(楚)·월(粵)의 선대(先代)는 대대로 국토가 있었다. 주나라가 쇠미(衰微)할 즈음에는 초(楚)의 국토가 5천리나 되었으며, 구천(句踐)도 월(粵)에서 패업을 이루었다. 진(秦)이 제후(諸侯)를 멸(滅)하였으나 오직 초(楚)에만 전왕(滇王)이 있었으며, 한(漢)이 서남이(西南夷)를 베었으나 진(滇)만 홀로 사랑을 받았다. 동월(東粵)이 멸망되자 나라에서는 그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는데, 요왕(繇王) 거고(居股) 등은 오히려 만호후(萬戶侯)가 되었다. 세 지방의 개척은 모두 일 좋아 하는 신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서남이(西南夷)는 당몽(唐蒙)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발의(發議)하였고, 양월(兩粵)은 엄조(嚴助)와 주매신(朱買臣)이 기의(起議)했으며, 조선은 섭하(涉何)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전성기(全盛期)를 만나 출동하면 성공하였으나 너무나 수고스러웠다. 태종(太宗)이 위타(尉佗)를 진무(鎭撫)한 옛 일을 보면, 옛 사람의 이른바 ‘예(禮)로써 초치(招致)하며, 덕(德)으로써 먼 곳의 사람을 회유(懷柔)함’이 아닌가!